

# 자기 근본을 믿고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하게 하세요

## 25면에서 계속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오신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안통, 심안으로 보는 것. 천이통, 심안으로 듣는 것. 신족통, 가고 읊이 없이 가고 오는 것. 또 타심통, 남의 마음을 잘 아는 것. 속명통,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 이 다섯 가지를 다 안다고 해도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도가 아니니라. 물 한 컵이 있는 것을 보고 들고 알 수 있어도 갖다 먹이지 못하고 내가 목마르는데도 먹지 못한다면 이진 진리가 아니니라. 도라고 할 것까지도 없이 이진 진리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오신통이라는 자체가 도가 아니니 하지만 그것은 누진으로 역할하는데 부속으로 쓰여진다 이겁니다. 누진에 들이고 내는 데 말합니다. 우리가 전부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부속이 돼 준다 이겁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진과 정수에서 일체 반법을 행하는 뜻이죠. 즉 평등공법은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이고 내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섯 가지가 부속이 돼서 밀어 주는데 그건 자동적입니다. 누진에서 이거를 받아서 들이고 냅니다. 들이고 내는데 그게 정확하게 입력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일도 알고 내일 일도 생각하고 그렇죠. 입력이 되면 현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들어 아닌 도리를 알고 한 찰나 생활을 안다면, 공한 생활을 안다면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말을 해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는 부속이 되고, 누진은 들이고 내는 데 역할을 하고, 정수에 바로 한 찰나에 그냥 입력이 되면서 사대로 통신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심성 과학일 수도 있고 심성천체물리학일 수도 있고 심성의학일 수도 있으니 심성에는 일거수 일투족 아니 밝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입력이 되면,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과 마음공부를 안 해서 자기 뿌리를 몰라라 하고 자기 짝이 자기 줄 아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죠.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나오는 대로 찰나찰나 입력된 데다 다시 놓기 때문에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 입력이 들어간 게 현실로 나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뿌리를 무시하면서 자기 차가 자기라고 여기고 차 속에 있는 운전수는 생각도 안 하거든요. 운전수가 차를 이끌어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모두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팔자 운명이나 자기가 업을 지어서 그렇다니 이게 고라니니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쪽 살 아오시면서 관습에 욕심에 집착에 꼬달려서 자꾸 입력이 된 것입니다. 입력이 됐으면 된 대로 나오는 거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행복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모두 그렇게 하나까 자기 탓이죠. 모든 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이 된 대로 한다면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올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비참한 일들이 생기는 원인이 자기 뿌리를 모르고 자기 종자를 모르고 자기 주장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고 그 차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고, 그 모습이 주어지는 동시에 바로 자기 일생의 그 소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너무나 정확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 중세계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세계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세계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도 그런데, 또 사람이 됐다가도 하천세계로 떨어져서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의 대접밖에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습대로 대접을 받게 되니까요. 이거는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있는 애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때에 말씀하신 것도 지금 현실입니다. 그때도 현실이었고 지금도 현실이고 미래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뚱이를 이끌어 가는 참자기가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부처라고도 하고 선장이라고도 하는 참자기 말

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 주처에 참자기가 있는 것이지 밖에, 이름이나 형상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깨닫게 해 주셔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 줄 수도 없고, 대신 잠을 자 줄 수도 없고 대신 먹어 줄 수도 없고, 대신 똥 뉘 줄 수도 없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의 세 가지를 보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뜻과 말과 행, 세 가지를 보되 그것도 따르라고 했지 믿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만을 믿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자기 자신만이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참자기가 있다는 것도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것이죠.

수억겁을 거치면서 그렇게 진화를 시켰고 정자 난자를 빌려서 형성시켜 왔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불교는 진리인 것이지 어느 한군데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라미타 젊은 법우님들이나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할 것은, 자기 근본을 믿고 거기서 해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집에 안 들어오면서 해매고 도는 자식의 부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속을 태우시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은 말로 몸을 붙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육체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마음공부라는 것이 별달리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컴퓨터로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인간마다 다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건 웬무릎 즉, 공법을 실행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할 때, 그것도 다 아는 사람은, 귀 뜨고 눈 뜨고 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거기다 맡기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걸 모르는 분에 한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게 구정물이 그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나올 듯하면 다시 거기가 되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 구정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니까 구정물이 안 나오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맑은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거기다가 입력을 한다면, 되놓는다면, 믿고 놓는다면 거기서는 앞서의 구정물 입력이 없어지면서 바로 맑은 물의 입력이 현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신을 믿고 허황되게 그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도 “나의 모습을,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라. 나를 따르되 믿는 것은 너를 믿어서 너를 먼저 찾아야 한다. 너를 발견하라. 너부터 알아야 우주가 하나로 돌아가는 섭류도 알게 되고 이 세상만사도 공해서 돌아가고 여여한 것을 그대로 알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한마디로 함축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외국에 가서 세미나도 해 봤지만 지금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전부 타

의에서 구하고 있어요. 전부 타의에서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죠. 불교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기독교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 그렇다는 얘기도.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너 먼저 발견하라.” 하시고 “밥 한 그릇을 가지면 이 세상 만물만생을 다 먹고도 그 밥 한 그릇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빵 하나가 모두를 먹이고도 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실수한 게, 근본을 모른다면 계란에 눈이 없는 것과 같아서 병아리를 낳 수가 없죠. 그런 거와 같이 모두가 “타인을 믿는다면 마구니와 같느니라.”라고 한 말 자체를 ‘나를 믿어야 되느니라.’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닌데, ‘각자 나를 믿어야지 타인을 믿는다면 도깨비장난 같고 마구니의 소굴 같으니라.’ 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알아들었잖고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했으니 까 예수의 모습으로만 그냥 한테 모인 거죠.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죠. 길이 뚫릴 수가 있나! 삼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냥 막히죠. 중간에 가서.

그러니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그 생활이 바로 교재인 것입니다. 생활 자체가 말입니다. 절을 할 때도 한생각을 등글러서 입심으로 일배를 올린다면 삼천 배 올린 것보다 더 귀중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들이고 내는 모든 것을 자기 몸뚱이가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 몸뚱이는 바로 차와 같고 차를 끌고 다니는 운전수는 안에 있습니다. 꽃나무도 뿌리가 없다면 꽃은 죽어 버립니다. 꽃은 바로 자기 뿌리를 의지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뿌리로써 에너지를 흡수해서, 지분이나 수분이나 철분이나 이런 것을 흡수해서 올려보냄으로써 나무가 푸르르게 살 수 있고 또는 꽃도 필 수가 있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제 나무에서 무르는데 여러분을 다 먹고도 그 과실은 되남는 것이 되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6년 9월 15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자기 근본은 어떠한 문제도 대처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진 완성된 자기의 보배인 것입니다

빌려서 이 내 인생 태어나니...’ 했지만 지금은 정자 난자라고 부릅니다. 자기 영혼과 더불어 정자 난자가 없다면 태어날 수가 없죠. 자기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자기를 그렇게 수억 겁을 거치면서 형성시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근본은 완성된 자기입니다. 완성된 자기 보배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대처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진 자기의 보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보배인 까닭에 보디가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러더군요. 길을 지나가다 보니 어떤 젊은이들이 와서 발길로 차고 돈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아이구, 주인공! 너만이 이거 막아 줄 수 있잖아.’ 하고 그냥 아주 애타게 그랬습니다. 그 애들이 팔을 잡아당기면서 돈이 얼마 있느냐고 해서 천 원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 혼자 먹고 떨어져라.’ 이라고선 그냥 가버립니다. 이런 일이 모두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로부터 쪽 내려온, 자기 모습을 형성시켜 내려온 자기와 지금 모습의 자기와 들어 아닌 까닭에 그것은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것뿐

### 초기불교 VS 선불교

한국불교의 미래는 선불교인가 초기불교인가?  
불교 전반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흥미진진하게 써내려간 한 편의 소설 같은 책. 현대 한국 불교를 관통하는 두 개의 흐름, 전통적인 선불교와 새롭게 유행하는 남방불교의 한판 대결! 한국사회에서 선불교는 한계에 봉착한 것인가? 남방불교의 득세는 일시적 유행인가, 아니면 한국불교의 미래인가? 보다 본질적으로, 한국 초기불교주의자들의 주장은 교리적으로 올바른가?  
방경일 저 | 신국판변형 | 296쪽 | 값 13,000원

---

###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리벳 사자의 서』에 의한 죽음에서의 해탈법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의 죽음 기간 중 단 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천도를 하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망자를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석범성 편역 | 신국판변형 | 144쪽 | 값 8,000원

### 금강경 해설의 새로운 지평!!! 풍부한 일화와 사진,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넘나드는 깊고 폭넓은 해설!

##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경

초기불교를 자랑분 삼아 더욱 풍부해진 금강경 해설!  
이 책은 계율과 선정을 중시하는 초기불교와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대승불교, 번뜩이는 지혜를 강조하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수행자의 안목에서 한 맛으로 회통하고 있다.

사진과 일화로 읽는 금강경!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듯한 생생한 해설과 다양한 사진자료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불법의 정수까지도 오롯이 드러내 보인다.

한 편의 소설을 읽듯 흥미진진한 금강경!  
마치 한 편의 상황극을 보는 듯 재미있고 친절한 풀이를 한 장 한 장 읽다보면, 지혜의 완성, 번뇌의 타파에 한 발 다가가는 어느덧 참나를 찾는 길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법산 편역 | 신국판양장 | 울컬러 | 764쪽 | 값 38,000원

\*저자 법산 스님은 국내 제법과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수행했으며, 현재 대구 대각사(053-6565-108)에서 불교명상대학 지도와 금강경 강좌를 통해 법연을 나누고 있다.

● 북다북 www.buddhabook.co.kr ● 주문 (02) 3672-7181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